

코로나19 뚫고 지역 체육계 잇단 낭보

8월에만 두차례 정상...전남도청 펜싱 '전성시대'

여자 에페 단체전 대통령배 이어
전국종별선수권대회도 우승
사브르 팀은 동메달 획득

시청과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 전남도청은 이번에도 44-41로 승리했다.
이들은 8강에서 광주서구청을 45-33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오른 뒤 준결승에서 강원도청을 45-37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전남도청 펜싱 에페팀은 지난 14일에는 강원도 흥천에서 열린 대통령배를 석권했다.
전남도청 사브르 팀도 종별선수권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사브르팀(김지현·박다은·최세빈·박한휘)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익산시청에 42-45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세빈은 사브르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펜싱 에페팀이 제58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펜싱팀이 올시즌 전성시대를 열었다.
8월에만 두 차례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2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도청 펜싱 에페팀(유진실·김향은·박소형·유단우)은 지난 21일 강원도 양구에서 끝난 제58회 전국남녀종별펜싱 선수권대회 여일부 에페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결승에서 지난 대통령배 결승전에서 만난 계룡

호남대 펜싱도 빛났다

전국종별선수권 사브르 개인전 송은균 우승·양예술 준우승

단체전에선 남녀 모두 준우승
호남대 펜싱부 송은균(스포츠레저학과 4년)이 제58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5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에 따르면 펜싱부는 지난 21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이 대회 단체전에서 남·녀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다.
송은균의 사브르 개인전 우승에 이어 양예술(스포츠레저학과 4년)은 사브르 개인전 준우승을, 전

수인은 개인전 3위에 올랐다.
호남대학교 펜싱부 김병진 감독은 "코로나19로 체육관 이용이 중단되는 어려운 훈련상황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조절이 쉽지 않았으나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있다"며 "대회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대학측에 감사드리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꾸준히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대 펜싱부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번 대회에 최소 인원(남 4명, 여 5명)만을 파견했음에도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승한 송은균.

전남기술과학고 복싱 전국 제패

대통령배 여고부 금메달 2개로 단체 1위...남고부 동메달



전남기술과학고 복싱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기술과학고 복싱팀이 대통령배 복싱대회를 제패했다.
여고부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기술과학고의 고등부 여자단체 1위에 올랐다.
전남기술과학고 복싱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제50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민진(2년)은 여고부 -60kg급 결승에서 김서희(경기)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예니(1년)도 -69kg급 결승에서 강수경(부산)에 판정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박수인(2년)은 남고부 -60kg급 준결승에서 김현서(경남)에게 아쉽게 판정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박지선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같은 대회에 출전한 광주체고 성현태와 정현우는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석중 검도 단체전 준우승·개인전 3위

대한검도회장기 전국대회

광주서석중학교 검도부가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3위를 차지했다.
서석중(감독 이재경)은 지난 21-23일 강원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3위에 올랐다.
서석중은 준결승에서 서원중(충북)을 4-1로 가볍게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후 결승에서 숙적

광명중(경기)과 맞붙었다. 서석중은 올해 강호로 손꼽히는 광명중에 0-3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개인전에서는 김민수(3년)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수는 준결승에서 남궁도훈(광명중 2년)을 만나 초반 팽팽한 접전 끝에 머리치기로 선취 득점했지만 후반 머리와 손목을 잇따라 내주며 1-2로 패해 3위에 머물렀다.
한편, 서석중은 제1회 대한검도회장기 대회에서 단체 준우승, 2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다.



이재경(맨 왼쪽) 서석중 검도부 감독과 선수들.

'광주체력인증센터' 개소...월드컵경기장 2층에



광주시, 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자들이 광주체력인증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국민체력 100 광주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가 광주에서 개소했다.
25일 광주시체육회(회장 김창준)에 따르면 최근 센터가 들어선 월드컵경기장 2층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357㎡(약 108평)의 규모로 운동처방사, 체력측정사 등 직원 10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다양한 측정 장비를 이용해 체력측정, 체력증진교실,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센터가 앞으로 전라권 지역민을 위해 수준 높은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코비치, 6개월만에 공식 경기 승리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약 6개월만에 치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다.
조코비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ATP 투어 웨스턴 & 서던오픈(총상금 422만 2190달러) 대회 사흘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리카르도 베란키스(72위·리투아니아)를 2-0(7-6(7-2) 6-4)으로 제압했다.
올해 2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회 이후 약 6개월 만에 ATP 투어 대회에 출전한 조코비치는 올해 투어 경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19전 전승을 거뒀다.
다만 조코비치는 ATP 투어가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6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아드리아 투어라는 미니 투어를 직접 개최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앤디 머리(129위·영국)는 2회전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7위·독일)를 2-1(6-3 3-6 7-5)로 물리쳤다.
함께 열리고 있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 서던오픈(총상금 195만 790달러)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9위·미국)가 아란차 러스(72위·네덜란드)를 2-1(7-6(8-6) 3-6 7-6(7-0))로 따돌리고 16강에 진출했다. 윌리엄스의 다음 상대는 마리아 사카리(21위·그리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테넷, 오케이 미담
3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4관	테넷, 반교: 디텐션
5관	테넷
6관	테넷
9관	테넷, 오케이 미담
7관 씨네커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강철비2: 정상회담
8관 씨네커틀	나의 소녀시대, 오케이 미담, 69세 반교: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제3회 GAC그라제 축제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9. 2.(수)~3.(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